女性硏究
The Women's Studies
2016. Vol. 90 No. 1 pp. 131~162

중고령 장애여성의 경제적 노후준비에 관한 연구 : 장애정도를 중심으로

김승완* · 전지혜**

초 록

본 연구는 앤더슨 모형을 적용하여 중고령 장애여성이 경제적 노후준비를 선택하게 되는 요인과 함께 이러한 선택이 장애정도(중증, 경증)에 따라 어떻게 다른지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장애인고용패널조사(PSED, 2~7차년도)'에 참여한 50세 이상의 중고령 장애여성 1,857명의 원자료를 활용하여 중증 및 경증 중고령 장애여성으로 구분하여 패널로짓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중고령 장애여성이 노후준비를 하고 있는 비율은 매우 낮아서(중증 8%, 경증 16%), 노후 빈곤이 예상되었다. 둘째, 장애여성들의 장애정도와 상관없이 중경증 집단 모두, 교육수준, 취업여부,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 주택소유여부가 노후준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장애여성이 취업을 하고, 교육수준이 높으며, 자가주택을 소유하고,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다고 인식할수록 노후준비를 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셋째, 중증 중고령 장애여성과 경증 중고령 장애여성 간의 노후준비에 다르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있었다. 중증 중고령 장애여성의 경우에는 연령이 적을수록,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경제적 노후준비를 할 확률이 높아졌으며, 경증 중고령 장애여성의 경우에는 가구원수가 적을수록, 가구균등화지수가 높을수록 경제적 노후준비를 할 확률이 높아졌다. 이와 같은 분석결과를 통해, 중경증 중고령 장애여성 두 집단 모두 자산형성지원이나 취업지원, 교육지원 등을 통해 경제적 노후준비를 도울 필요가 있으며, 장애정도에 따라 중증 장애여성의 경우 건강증진에 더욱 초점을 두고, 경증 장애여성의 경우 가구원의 경제력 및 특성이 고려된 노후준비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주제어 : 중고령 장애여성, 경제적 노후준비, 장애정도, 앤더슨 모형

* 제1 저자 : 한국장애인개발원 정책연구실 부연구위원
** 교신저자 : 인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조교수

Ⅰ. 서 론

한국은 지난 2000년 노인인구가 7%를 넘어 고령사회에 진입하였으며, 2018년에는 노인인구가 전체인구의 14%를 넘는 고령사회로 진입할 예정이다. 이러한 노인인구의 증가와 함께 장애여성 인구도 증가하였다. 2014년 보건복지부의 등록장애인 현황에 따르면 한국의 장애여성 1,119,661명 중에서 60세 이상이 719,354명으로 전체 장애여성의 64.2%를 차지했다. 즉 고령 장애여성의 상당히 높으며 늘어나는 평균수명을 고려할 때 주요한 사회복지 대상 집단임이 분명하다.

최근 들어 이러한 고령 장애여성의 삶을 이해하고자 하는 연구들이 수행되었다. 고령 장애여성은 노인, 장애, 여성이라는 복합적 특성을 지님으로써 인구사회학적차원에서 다중적 소수자의 지위에 놓이며 더 큰 위험에 처하게 된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다(Grenier, 2005; 김미옥 외, 2013). 고령 장애여성이 처하는 위험에 대해서 선행연구에서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되는데 신체적인 측면과 관계적인 측면, 경제적인 측면이다. 우선 신체적인 측면에서 장애여성은 장애남성에 비해서 노화의 과정 속에서 신체적 변화를 경험하면서 여성으로서의 역할상실, 성정체성에 대한 고민, 신체기능저하의 어려움을 더 많이 겪는다(Pentland et al., 1999; Harrison, 2004). 관계적인 측면에서는 남편의 사망이나 자녀의 출가 등으로 인한 우울과 사회적 고립감이 커진다(Simonsick, 1993).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기존의 가족에 대해 의존해 있다가 가족 구성원을 잃고 혼자 남겨지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거나, 장애와 고령이라는 한계로 인해 경제활동의 한계를 느끼고, 건강악화로 의료비 부담이 커지면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다(Harrison, 2004). 즉, 비장애여성에 비하여 장애특성으로 인하여 고령 장애여성의 노년기의 취약성은 더욱 커지며 건강과 빈곤의 문제가 심각한 것이다. 그러나 고령의 장애여성과 관련된 대부분의 연구들은 장애여성이 고령의 시기에 얼마나 어려움을 지니는지 살펴보는 연구들이었다. 이러한 취약한 노후의 생활을 위해 장애여성들이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본 연구는 거의 없다.

최근 보건사회연구원에서 수행한 연구에 의하면 한국인이 지난 일 년간

가장 불안을 느낀 문제는 노후문제(25.3%)였고 그 뒤를 이어 취업과 소득 문제가 불안을 느낀 요인(18.4%)이라고 응답했다(이상영 외, 2015). 장애여성의 미래에 대한 고민이나 불안요인도 비장애인과 비교하여 크게 다르지는 않다. 2015년 장애통계연보에서 장애인가구는 비장애인가구에 비해 빈곤률이 두배 이상 높고, 돈 걱정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보고했다. 게다가 장애여성의 경우 같은 장애상태를 가진 남성에 비해 더욱 열악한 노동여건에 처해있으며 취업률도 남성장애인의 절반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조윤화 외, 2015). 즉, 장애여성은 안정적 노동시장에 진입하기 어렵고, 저임금 불안정 노동 상태에 처한 경우가 많아서 상대적으로 노후에 대한 경제적 준비가 더욱 열악한 상황이라 해석해볼 수 있다. 생계를 유지할 노후의 경제적 준비는 더욱 필요한 기본적인 노후준비임에도 불구하고, 장애여성의 경제적 노후준비에 관한 연구는 거의 수행되지 못했다.

고령 장애여성의 노후준비와 관련한 국내연구 중에서,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요인이 고령 장애여성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며 노후준비가 삶의 만족의 조절요인이 되고 있음을 보여준 연구가 있다(권재숙·김성진, 2012; 박주영, 2013). 하지만 이 연구들 역시 노후준비를 하는 것이 장애여성의 삶의 만족을 높이는데 중요한 요인임을 보여주었을 뿐, 장애여성들이 어떤 상황에서 노후준비를 하는지와 관련한 노후준비에의 영향요인을 알아보지는 못하였다. 일부 해외 연구들에서도 장애인의 은퇴계획을 다룬 연구가 일부 있으나, 장애여성의 노후준비에 관한 연구는 찾기 어렵다.

100세 시대를 논하는 현재의 시점에서 장애여성의 노후생활의 기간은 더욱 길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만큼 장애여성의 노후문제는 더 이상 간과해서는 안되는 이슈이다. 이에 본 논문은 장애여성이 나름의 노후준비를 하고 있을 것이라고 전제하고, 어떤 요인들이 장애여성의 노후준비 여부를 결정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장애여성의 노후준비 여부를 결정하는 요인이 무엇인지 알아봄으로써 본 연구는 개인적 차원에서 어떤 요인들을 강화하여 노후에 장애여성이 빈곤한 노후를 보내지 않을 수 있는지 제언할 수 있으며, 이를 토대로 장애여성의 노후준비를 위한 정책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빈곤에 처할 위험이 높은 고령 장애여성의 경제적 노후준비에 관한 연구는 고령자 부양부담이 늘어나고 있는 현재 시점에서 무엇보다 필요하며, 또한

장애여성의 자립된 노후생활을 위한 준비로서도 의미가 있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노후준비를 경제적 노후준비의 영역으로 한정하였고, 중증과 경증으로 연구 대상을 구분하여 장애여성으로서 공통점은 있지만 장애정도[1]에 따라 어떤 요인들이 노후준비에 다른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비교해보고자 하였다. 또한 분석대상을 경제적 노후준비 이슈에 민감한 대상층으로 볼 수 있는 50세 이상의 중고령 장애여성으로 하였다. 분석결과를 토대로 장애정도에 따라 장애여성의 노후준비에 다르게 접근하는 차별화된 정책방안을 논의해 보고자 하였으며, 기존의 비장애인 대상의 노후준비 결정요인과 본 논문의 분석결과가 어떻게 다른 특성을 보이는지 논의하여 장애여성에게 필요한 노후준비 방안이 무엇인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본 논문은 노후준비의 수준이나 정도가 고려된 연구가 아니기에 적정수준의 노후준비를 위한 정책방안 제시에는 한계가 있으나, 한국의 장애여성의 노후준비에 관한 탐색적 연구로서 향후 장애여성의 노후생활의 경제적 안정을 위한 기초 연구로서 기여하고자 하였다.

Ⅱ. 이론적 논의

1. 장애, 여성, 그리고 고령화와 노후준비

최근 여성 관련 연구자들은 젠더와 다른 소수자적 특성이 중첩되는 영역(intersection)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빈곤여성, 싱글맘, 이혼 여성, 고령여성, 다문화 여성, 장애여성, 성폭력 피해여성 등, 여성으로서 이중의 사회적 억압을 경험하고 있는 집단에 관한 연구가 진행된 것이 그 증거이다(Wakita et al., 2000). 기존의 장애여성에 관한 연구는 3가지 주제영역으로 구분된다. 첫째, 가부장적 지배이데올로기와 정상성의 이데올로기(ideology of ability)가 장애여성에게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 살펴보면서, 장애여성이 사회 속에서 얼마나 억압받고 배제되는지 보여준 연구들이다(Thomas,

1) t-test 결과 중증 장애여성과 경증 장애여성 간에는 t=159.727, p=.000(***p<.01)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다.

1999; Wendell, 2006). 남성 중심적, 정상적 신체 중심의 사회(able-bodied society)에서 장애여성은 더 빈곤하고 덜 교육받거나(Emmett, 2006), 성폭력이나 학대의 대상이 되고 있었다(Groce et al., 2009; Sait, et al., 2009; Barbuto & Napolitano, 2014). 또는 무성적 존재로서 인식되는 등 장애 억압적 사회에서 장애여성으로서의 고유의 삶의 경험을 다루는 연구들이 수행되었다(Lloyd, 2001; Nosek et al., 2003). 둘째, 장애여성이 이중의 사회적 억압을 경험하지만 동시에 저항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연구들이다. 억압받은 장애여성이 스스로 장애 가치를 재개념화 하고 주류 이데올로기에 저항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연구가 수행되었고(Ahern, 1996; Browne, 1998; Kang, 2010), 장애여성의 임파워먼트에 초점을 둔 연구도 수행되었다(Foster & Sandel; 2010; Morell, 2003). 셋째, 장애여성의 차별문제나 비장애여성 또는 장애남성과의 사회경제적 격차에 주목하면서 장애여성의 복지지원체계 마련 및 경제적 자립지원을 강조하는 연구(Begum, 1992; Rochester Institute, 2001 오혜경 외, 1999; 이혜경 외, 2002; 성정현·이영미 ; 2003)들이다. 그러나 이러한 기존의 연구들은 거의 장애여성의 차별이나 억압, 이에 대한 복지지원 등 과거와 현재의 문제에만 주목하였으며, 장애여성의 미래 문제에는 관심을 두지 못하였다.

고령화와 노후준비에 대한 연구는 상당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여성과 같은 사회적 취약계층의 노후문제나 준비에 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노후준비라는 용어는 대부분 선행연구에서 은퇴준비, 또는 은퇴후 재정설계, 또는 경제적 노후준비라는 용어로 표현되고 연구되었다. 특히 국내적으로 2000년대 이후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경제적 노후준비에 대한 연구(김윤정·최윤희, 2004; 박창제, 2008; 배문조, 2009; 김주성·최수일, 2010; 나지나 외, 2010; 조성숙·서훈, 2011; 김동배 외, 2012; 김혜진, 2012; 유인순·최수일, 2012; 정순둘·이현희, 2012)가 수행되었고, 노후준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도 밝혀졌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은 역시 비장애인 남성가장을 중심으로 한 연구들이었으며, 젊은 시절 경제활동을 통한 수입이 있는 사람들을 전제로 한 연구들이었다. 이는 노후준비라는 용어자체가 자본주의 사회속에서 비장애인 남성중심의 가부장제적 이데올로기가 만들어낸 용어임을 보여주기도 한다. 이들 연구에서는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준비로서 개인연금이나 퇴직연금을 위한 조기저축이나, 노후 일자리 준비, 재무교육이나 경제상담 지원 등의 정책적 논의를 하였다. 즉 현실을 살아가기만도 벅찬 저소득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노후준비나 은퇴 설계는 연구주제로서 다루어지지 않은 것이다. 건강상태도 나쁘고 소득이나 자산상황도 상대적으로 열악한 장애인집단은 노후준비의 대상으로서 취급되지 못한 것이다. 게다가 장애여성은 젊을 때조차 가구의 소득원이나 노후준비의 주체로 여겨지지 못하였다.

여성의 노후준비와 관련된 연구주제 영역으로 노인일자리에 관한 연구도 최근에 급격히 늘어나고 있으나 이 연구영역에서도 장애여성은 배제되었다. 비장애여성의 경우 노년에 손자녀를 돌보면서 용돈 또는 생활비를 받거나, 건물청소 용역업무 등 비정규 저임금 노동시장에서라도 소일거리를 찾게 되거나, 요양보호사 등의 사회적 일자리나 시간제 일자리에서 노년에 활동하여 적은 소득활동에 참여한다(성지미·안주엽, 2012; 김소희·박미현, 2015). 하지만 장애여성의 경우 이러한 돌봄 노동이나 육체적 저임금 노동시장에 투입되기에는 신체적 여건이 허락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이러한 노인일자리 사업에서도 배제되기에, 비장애여성과는 별도로 장애여성의 노후준비에 관한 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탐색적인 수준에서나마 장애여성의 노후준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알아보고자 한다. 의료기술의 발전에 따른 평균수명의 연장, 경제위기로 인한 조기퇴직, 자녀 부양기간의 증가, 지식과 기술의 빠른 변화로 인한 노인 일자리 부족 등의 사회환경적 상황들로 인하여 비장애인의 노후준비가 강조되고 있다면, 장애여성은 비장애인과 같은 상황적 특성에 더불어 저소득, 가족의 상실, 낮은 자산상태, 건강상태로 인한 치료비 증가, 낮은 공적소득보장 수준, 가족의 연대감이나 유대의 상실 등으로 인하여 더욱 노후의 경제적 안정을 위협받을 수 있다. 따라서 장애여성의 경제적 취약성에 미리 대비하는 노후준비는 중요하며, 어떤 요인들이 장애여성의 노후준비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2. 중고령 장애여성의 노후준비 관련 영향요인

장애여성의 노후준비와 관련된 선행연구는 앞서 논의하였듯이 미흡하다. 단, 비장애인 또는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를 통해 장애여성의 노후준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검토할 수 있다. 개인의 노후준비라는 것은 처한 사회제도적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개인적 요인도 노후준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후준비에 영향을 주는 개인적 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적용해 볼 수 있는 연구모델은 Andersen의 행동모형(behavior model)이다.

앤더슨 모형은 본래 보건행동을 분석하는데 가장 많이 활용되는데, 보건관련 행위가 개인적 필요(perceived need)에 의해 시작되고, 개인의 가용자원(enabling resources)에 의해 가능해지며, 개인의 생물학적, 사회·심리적 기질(disposition), 즉 소인적 특성(predisposing characteristics)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논리에 기반하고 있다(Anderson et al., 2000; 박창제, 2008). 개인의 노후준비도 개인의 필요에 의해 시작되고 가용자원과 소인적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일종을 행동결정에 관한 부분이기에 앤더슨 모형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Yuan(2006)은 50~64세에 속한 중고령자들의 재무준비도 개인의 합리적 의사결정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Andersen 모형을 이용하여 설명한 바 있다. 그의 연구에 따르면 중고령자는 노후를 위한 준비행동을 할 때 제한된 환경 하에서 합리적인 결정을 한다고 볼 수 있으며, 개인의 노후준비 행동의 의사결정도 보건행동의 의사결정과 큰 차이가 없을 것이라 하였다.

앤더슨 모형으로 접근한 것 외에도 다양한 관점에서 경제적, 신체적, 정서적 노후준비에 대한 선행연구가 진행되었다. 박창제(2008)는 45세에서 59세 사이의 중고령자의 경제적 노후준비에 관해 연구하였으며, 경제활동, 현재소득인식, 주택소유, 전반적 생활여건 등이 경제적 노후준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지적하였다. 나지나 외(2010)는 결혼해체를 경험한 무배우자 베이비부머 여성의 노후준비 현황과 이에 영향을 주는 변수들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결혼해체경험 여성들은 교육수준과 월평균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그리고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 경제적 준비를 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바탕으로 취약계층의 빈곤화를 예방하기 위한 재정적 지원정책과 직업교육 프로그램에 대해 제언하였다. 이여봉(2012)은 베이비 붐 세대와 이전세대라는 두 범주로 중년여성들이 닥칠 노년을 위한 경제적 준비와 노후 취업의지에 있어서 자녀의 존재와 현재의 가구경제적 상황과 사회인구학적 변수들이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 주목하였다. 노후를 위한 경제적 준비여부를 설명하는 모형에서 베이비 붐 세대와 이전세대 모두 현재의 가구경제상황이 가장 설명력이 높았다. 반면에 노후 취업의지 유무를 설명하는 모형에서는 교육수준, 취업여부, 거주지 등과 같은 사회인구학적 변수군이 높은 설명력을 지녔다. 김정미·엄기욱(2014)은 베이비 붐 세대의 가족특성이 경제적 노후준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부모요인 중에는 부모지원, 자녀요인 중에서는 자녀수와 교육비 지출이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체적 노후준비에 관한 연구에는 김주성·최수일(2010)의 라이프스타일과 노후준비에 관한 연구가 있는데, 연구결과 40대 이상의 중고령층에서 건강 및 여가 추구의 보수적 가족추구 라이프스타일은 노후준비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김동배 외(2012)는 65세 이상 노인의 과거 노후준비가 성공적 노화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였는데, 과거에 건강유지 활동을 했을수록 성공적 노화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순돌·김성원(2013)은 Andersen and Newman 모델에 근거하여 베이비부머와 예비노인의 신체적 노후준비 영향요인을 분석하였다. 베이비부머의 경우 자녀유무, 가구소득, 정신건강검진의향 등이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며, 예비노인의 경우 학력만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윤정·최윤희(2004)는 중년기 부부의 정서적 노후준비에 주목하였는데, 남편과 아내의 결혼만족도가 높을수록 노후준비 수준이 높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배문조(2009)는 노인과 신체적 노후준비의 관계를 조사하였는데, 노인과의 동거경험과 접촉경험이 노인에 대한 태도를 긍정적으로 인식하게 하며, 노인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인 사람일수록 노후준비 의식이 높게 나타났다. 조성숙·서훈(2011)의 연구에서는 배우자와의 관계가 원만하며, 직장생활 만족도가 높고, 사회적 교류가 높을수록 노후준비 수준이 높다는 점을 제시하였으며, 김동배 외(2012)의 연구에서도 취미와 여가활동을 한 경험이

있을수록 성공적 노화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베이비부머 세대의 노후준비를 대상으로 한 박현식(2012)의 연구에서는 성공적 노후에 있어서 경제적, 신체적 준비에 비해 정서적 준비가 상대적으로 영향력이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김미혜 외(2012)는 베이비부머와 예비노인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부부관계 특성의 경우 베이비부머가 예비노인에 비해 배우자 만족도가 낮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정순둘·이현희(2012)의 연구에서도 베이비부머와 예비노인의 노후준비에 자녀와의 관계만족도가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후준비에 관한 기타 연구로는 산업체 중년근로자들의 노후준비에 영향을 미치는 연구(조추용 외, 2009), 성격특성이 노후준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유인순·최수일, 2012), 연령층의 노후생활에 대한 인식이 노후준비 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김혜진, 2012) 등이 있다. 그리고 국내에서 유일하게 장애인을 대상으로 연구한 조정아(2010)는 장애인의 경제적 노후준비 실태와 결정요인을 연구한 결과 학력, 혼인상태, 주관적 계층 인식, 주택소유 여부, 취업여부, 건강 및 활동성 요인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고 논의하였다.

한편 여성의 노후준비에 주목한 해외 학술연구로는 Perckins(1995)의 경제적 은퇴준비에 관한 연구가 있다. 연구결과 남성에 비해 여성의 은퇴준비 수준이 낮았으며, 여성의 경우 소득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으며 수명이 길지만, 재정자원은 제한된 경향을 보인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여성이 은퇴준비를 하지 못하는 이유로 사회에서 수동적이며 의존적인 역할이 부여되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이와 유사하게 Noone et al(2010)의 연구에서는 남성과 여성의 은퇴계획이 다른지를 조사하였다. 2277명의 뉴질랜드 남녀를 조사한 결과 여성이 은퇴계획과 관련하여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경험하고 있다고 하였고, 은퇴에 대한 인식과 경제적 생활수준이 은퇴준비 여부와 유의미한 영향관계가 있다고 보고했다.

여성노인의 미래보호 계획에 대해 연구한 Sörensen & Pinquart(2000)는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독일인, 미국인. 캐나다인 여성노인들의 대부분이 만성적 상태와 일상생활 기능 제약을 경험하지만, 미래보호 욕구에 대한 준비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지적했으며, 자원의 제한, 불안정한 시스템, 개인적 특성이 노후계획 유형의 선택에 기여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다른 해 발표된 Pinquart & Sörensen(2002)의 연구에서는 여성 노인을 위한 미래보호 계획의 유용성에 대한 질적연구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미래보호 계획의 촉진요인은 '미래에 대한 안전감 획득', '잠재적 돌봄자 부담주지 않기', '현재 건강상태 대처'였으며, 미래계획의 저해요인은 '미래계획 예측하기 어려움', '자원부족', '인지된 의존성 수준 낮음'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촉진요인과 저해요인을 살펴본 또 다른 주목할 연구로는 Kemp et al(2005)의 연구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51명의 중고령자를 인터뷰하여 어떤 특성을 지닌 사람이 노후준비를 하고 있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노후준비의 저해요인과 촉진요인이 경제적인 차원, 개인적 차원, 가족적 차원의 영역에서 모두 나타났다. 경제적 차원에서는 은퇴계획 프로그램 및 고용주 프로그램이 촉진요인이었고 일자리 상실 및 예상외 지출이 저해요인이었다. 개인차원에서는 건강상태나 연령이 영향을 미쳤고, 가족의 죽음이나 이혼, 재혼 등 가족차원의 일들은 저해요인이 되기도, 촉진요인이 되기도 했다. 또한 연구 참여자의 사회적 지위가 노후준비 여부에 영향을 주었으며, 자신의 삶과 환경에 대한 주관적 인식이 매우 중요한 영향요인이었다.

이상 기존 연구를 통해 볼 때 노후준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경제적, 신체적, 정서적 요인 등 다양한 측면에서 고려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중에서도 본 연구는 '중고령 장애여성의 경제적 노후준비'에 초점을 두었다. 장애여성은 경제적으로 취약한 대표적 집단으로서 중고령 장애여성의 경우, 미래의 삶에 대한 걱정에서 신체적 건강 못지않게 경제적 안정 여부가 중요한 요인이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노후의 재무준비를 위한 결정요인을 살펴보는데 적합한 모델로 앞서 살펴본 앤더슨 모델을 적용하였다. Yuan(2006)의 연구에서도 노후준비 결정요인을 알아보고자 본 모델을 활용한바 있으며, 선행연구들이 주목한 다양한 영향요인을 개인적 필요, 가용자원, 소인적 특성으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기 때문이다.

Ⅲ. 연구 방법

1. 분석자료 및 대상

본 연구는 '장애인고용패널조사(Panel Survey of Employment for the Disabled, PSED)'의 2~7차년도(2009~2014년) 원자료를 분석하였다. 장애인고용패널조사는 우리나라 등록장애인을 대표하는 패널표본 5,092명을 대상으로 1년에 1회 경제활동 및 직업적 능력, 고용서비스, 직업훈련, 소득, 소비, 일상생활 등에 관하여 추적 조사하는 종단면 조사이다(양수정 외, 2012). 본 연구의 분석대상은 2009년(2차 웨이브)부터 2014년(7차 웨이브)까지 조사에 모두 참여한 중고령 장애여성을 대상으로 하였다. 특히, 50세 이상 경제적 노후준비 여부를 응답한 중고령 장애여성 1,857명을 본 연구대상에 포함하였다. 중고령층은 노후준비에 민감한 대상층으로서 노후준비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살펴보는 본 연구로서 가장 적합한 연구대상층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분석대상을 장애정도에 따라서 중경증 두 집단으로 구분하였는데, 1-3급 중증 중고령 장애여성이 1,023명, 4-6급 경증 중고령 장애여성이 834명이었다.

2. 연구모형

중고령 장애여성의 경제적 노후준비 여부 선택 영향요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패널로짓분석(Pannel Logit Analysis)을 실시하였다. 패널로짓모형은 종속변수가 이항변수인 경우에 적합한 분석방법이다.

$$y_{it} = \begin{cases} 1, \ y_{it}^{*} > 0\text{인 경우} \\ 0, \ y_{it}^{*} \leq 0\text{인 경우} \end{cases}$$

$$y_{it}^{*} = \alpha + \beta\chi_{it+} u_i + e_{it}$$

위 식에서 오차항 u_i는 패널개체에 따라 변하는 이질성을 나타내지만, 하나의 패널개체 내에서는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는 영속적 특징을 가지며, 오차항 e는 패널개체와 시간에 따라 변하는 순수한 오차항이다. 패널로짓

분석은 오차항 e가 로지스틱분포를 따른다고 가정한다. 또한 패널로짓분석은 오차항 u_i를 고정효과와 확률효과 중 어느 것으로 가정하느냐에 따라 고정효과모형(Fixed Effect Model)과 확률효과모형(Random Effect Model)으로 구분될 수 있다. 확률효과모형의 경우 u_i가 확률분포를 따른다고 가정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확률표집에 의하여 수집된 서베이 조사의 경우에 확률분포를 따른다는 가정 하에 적용할 수 있다(민인식 · 최필선, 2009 ; 노승현 · 백은령, 2012 : 김승완 외, 2015: 14). 본 연구에서는 확률효과모형에 기초한 패널로짓분석을 실시하여 중고령 장애여성의 경제적 노후준비 영향요인을 분석하였다.

3. 변수의 정의

1) 종속변수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중고령 장애여성이 장애정도에 따라 경제적 노후준비를 선택하게 되는 영향요인이 무엇인지 살펴보는 데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경제적 노후준비 여부이다. 본 논문에서 종속변수로 활용한 고용패널 조사의 설문문항은 “000 님은 60세 이상의 노후를 위한 준비를 별도로 하고 계십니까?”라고 묻고 있고, 답변은 ‘예’ 또는 ‘아니오’로 선택하도록 되었다. 또한 설문문항의 안내문에서, “노후준비란 고령화에 따라 경제활동 기간이 종료된 후(일반적으로 60세 이상)인 노후기간의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후자금을 안정적으로 얻을 수 있도록 경제활동 기간에 미리 준비해두는 것을 말합니다”라고 명시하고 있어, 본 문항에 응답한 장애여성은 ‘경제적 노후준비’로서 전제하고 설문에 응답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노후준비 여부를 묻는 본 문항을 경제적 노후준비 여부를 알 수 있는 문항이라 판단하였고, 노후준비 행동을 의미하는 종속변수로 삼았다. ‘예’라고 응답한 경우 1로 ‘아니오’라고 응답한 경우는 0으로 코딩하였다.

2) 설명변수

설명변수는 선행연구 검토내용을 바탕으로 소인적 특성, 가용자원, 인식된 필요로 구분된다. 첫째, 소인적 특성은 연령, 교육년수, 배우자 유무, 가구원수가 포함되었다. 연령은 만나이 기준으로 연령을 제곱하여 투입하였으며, 교육년수는 '최종학교', '졸업여부', '학년' 변수를 활용하여 연수변수인 교육년수 변수를 생성하였다. 그리고 배우자 유무는 배우자 없음은 '0', 배우자가 있으면 '1'로 코딩하였으며, 가구원수는 현재 모든 가구원수를 투입하였다.

둘째, 가용자원은 취업여부, 가구균등화지수, 가구이전소득,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 주택소유 유무가 포함되었다. 취업여부는 미취업이면 '0'으로 취업이면 '1'로 코딩하였다. 그리고 가구균등화지수(equivalence scale)는 가구의 인구학적 특성에 따라 상이한 필요수준을 추정하여 도출하는 방법으로 가구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금융소득, 부동산소득, 기타소득을 합쳐서 가구원수의 제곱근으로 나눈 값을 코딩하였다. 또한 가구이전소득은 사적이전소득과 공적이전소득을 합친 값으로 생성하였다. 그리고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는 하층, 중하층이면 '0'으로 코딩하였으며, 중상층, 상층이면 '1'로 코딩하였으며, 주택소유 유무와 관련해서는 자가가 아니면 '0'으로 자가이면 '1'로 코딩하였다.

셋째, 인식된 필요에는 장애유형, 건강상태가 포함된다. 장애유형은 신체외부장애의 경우 '0'으로, 그 밖에 신체내부장애, 감각장애, 정신적 장애는 '1'로 코딩하였다. 그리고 건강상태는 매우 좋지 않다, 좋지 않은 편이다는 '0'으로 좋은 편이다, 매우 좋다는 '1'로 코딩하였다.

〈표 1〉 변수의 정의

구분		변수명	변수정의	속성
종속변수	경제적 노후준비 여부		하고 있지 않다=0, 하고 있다=1	범주형
설명변수	소인적 특성	연령	연령제곱(만나이 기준)	연속형
		교육년수	'최종학교', '졸업여부', '학년' 변수를 활용하여 연속변수인 '교육년수' 변수를 생성함	연속형
		배우자 유무	배우자 없음=0, 배우자 있음=1	범주형
		가구원수	현재 가구원수	연속형

구분	변수명	변수정의	속성	
설명변수	가용자원	취업여부	미취업=0, 취업=1	범주형
		가구균등화지수	(근로소득+사업소득+금융소득+부동산소득+기타소득) / 가구원 수의 제곱근	연속형
		가구이전소득	사적이전소득 + 공적이전소득	연속형
		사회경제적 지위	하층, 중하층 = 0, 중상층, 상층=1	범주형
		주택소유 여부	미자가 = 0, 자가 = 1	연속형
	인식된 필요	장애유형	신체외부장애=0, 감각장애, 정신적장애, 신체내부장애=1	범주형
		건강상태	매우 좋지 않다, 좋지 않은 편이다=0, 좋은 편이다, 매우 좋다=1	범주형

Ⅳ. 연구결과

1. 일반적 특성

본 연구의 종속변수인 중고령 장애여성의 경제적 노후준비 여부를 시계열별로 살펴보면 〈표 2〉와 같다. 중증 및 경증 장애여성 모두 시간이 지나면서 경제적 노후준비를 한다는 비율이 점차 증가하고 있지만, 여전히 낮은 편이다. 특히 중증 중고령 장애여성의 경우 90%로 이상이 노후준비를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증 중고령 장애여성은 중증 장애여성에 비하여 경제적 노후준비를 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약 2배 정도 높게 나타났으나, 역시 80% 이상의 경증 중고령 장애여성이 노후준비를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장애여성의 경우 장애의 중증도에 따라 노후준비 여부가 다르게 나타났다고 볼 수도 있으나, 전체적으로 경제적 노후준비를 하고 있는 비율이 낮아서, 고령이 되었을 때 빈곤상태에 처할 확률이 매우 높아진다고 볼 수 있다.

〈표 2〉 중고령 장애여성의 경제적 노후준비 여부

구분	중증 중고령 장애여성		경증 중고령 장애여성	
	노후준비 함	노후준비를 하지 않음	노후준비 함	노후준비를 하지 않음
2009년(2차)	4.3%	95.7%	6.2%	93.8%
2010년(3차)	5.0%	95.0%	7.7%	92.3%
2011년(4차)	6.1%	93.9%	9.4%	90.6%
2012년(5차)	5.3%	94.7%	11.4%	88.6%
2013년(6차)	6.8%	93.2%	15.2%	84.8%
2014년(7차)	7.9%	92.1%	16.7%	83.3%

〈표 3〉 소인적 특성의 일반적 특성

요인	구분	내용	중증 중고령 장애여성	경증 중고령 장애여성
소인적 특성	연령	50-59세	49.0%	38.9%
		60-69세	41.3%	47.6%
		70-79세	9.4%	12.9%
		80세 이상	0.3%	0.5%
		평균(표준편차)	60.53(5.931)	61.92(6.260)
	교육년수	무학	34.9%	27%
		초등학교	33.7%	40.6%
		중학교	18.3%	18.5%
		고등학교	12.2%	12.8%
		대학교 이상	9%	1.0%
		평균(표준편차)	6.06(3.992)	6.50(3.801)
	배우자 유무	배우자 없음	55.6%	47.5%
		배우자 있음	44.4%	52.5%
	가구원수	평균(표준편차)	2.10(1.116)	2.19(1.100)

중증 및 경증 중고령 장애여성들의 소인적 특성은 〈표 3〉과 같다. 첫째, 연령과 관련하여 중증 중고령 장애여성들보다 경증 중고령 장애여성들의 연령평균(중증 60.53세, 경증 61.92세)이 더 높게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중증 중고령 장애여성들은 50-59세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경증

중고령 장애여성들은 60-69세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교육년수 평균은 경증 중고령 장애여성(6.50년)들이 중증 중고령 장애여성(6.06년)들보다 높게 나타났다. 셋째, 배우자 유무에서 중증 중고령 장애여성들은 배우자 없음(55.6%)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경증 중고령 장애여성들은 배우자 있음(52.5%)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가구원수 평균은 중증 중고령 장애여성(2.10명)들보다 경증 중고령 장애여성(2.19명)들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경증 중고령 장애여성들의 가용자원 일반적 특성은 〈표 4〉와 같다. 첫째, 취업여부에서 중증 중고령 장애여성(10.9%)들보다 경증 중고령 장애여성(31.8%)들이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특히 중경증 중고령 장애여성 모두 미취업자(중증 89.1%, 경증 68.2%)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가구균등화지수의 평균은 중증 중고령 장애여성(13.64)들보다 경증 중고령 장애여성(53.38)들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가구이전소득의 평균은 경증 중고령 장애여성(161.17)들보다 중증 중고령 장애여성(184.78)들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는 중경증 중고령 장애여성(중증 97.5%, 경증 93.6%)들 모두 하층, 중하층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경증 장애여성이 다소 중상층 이상이라 응답한 비중이 높았다. 다섯째, 주택소유 여부와 관련해서 중증 중고령 장애여성(35.9%)들보다 경증 중고령 장애여성(55.7%)들이 자가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가용자원의 일반적 특성

요인	구분	내용	중증 중고령 장애여성	경증 중고령 장애여성
가용자원	취업여부	미취업	89.1%	68.2%
		취업	10.9%	31.8%
	가구균등화지수	평균(표준편차)	13.64(104.95)	53.38(231.75)
	가구이전소득	평균(표준편차)	184.78(258.07)만원	161.17(290.85)만원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	하층, 중하층	97.5%	93.6%
		중상층, 상층	2.5%	6.4%
	주택소유 여부	자가 아님	64.1%	44.3%
		자가	35.9%	55.7%

중경증 중고령 장애여성들의 인식된 필요의 일반적 특성은 〈표 5〉와 같다. 첫째, 장애유형은 중경증 중고령 장애여성(중증 55.7%, 경증 67.5%)들 모두 신체외부장애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중증 장애여성에는 신체내부장애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경증장애여성에는 감각장애의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둘째, 건강상태는 중경증 중고령 장애여성 모두 매우 좋지 않다 혹은 좋지 않은 편이다(중증 83.2%, 경증 80.1%)에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표 5〉 인식된 필요의 일반적 특성

요인	구분	내용	중증 중고령 장애여성	경증 중고령 장애여성
인식된 필요	장애유형	신체외부장애	55.7%	67.5%
		감각장애	21.0%	30.3%
		정신적 장애	8.6%	-
		신체내부장애	14.7%	2.2%
	건강상태	매우 좋지 않다, 좋지 않은 편이다	83.2%	80.1%
		좋은 편이다, 매우 좋다	16.8%	19.9%

2. 장애정도에 따른 분석결과

1) 중증 중고령 장애여성

중증 중고령 장애여성들이 노후준비를 하게 되는 영향요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패널로짓분석을 실시하였다. 모형의 예측은 94.6%의 설명력을 나타냈다. 분석결과, 중증 중고령 장애여성들이 노후준비를 하게 되는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소인적 특성, 가용자원, 인식된 필요로 분석되었다. 구체적으로 소인적 특성 중 연령은 1%의 유의수준에서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교육년수는 1% 유의수준에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가용자원 중 취업여부 및 주택소유 여부는 1% 유의수준에서 정(+)의 영향을 미치며, 사회경제적 지위는 10% 유의수준에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인식된 필요 중 건강상태는 5% 유의수준에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첫째, 소인적 중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요인을 살펴보면, 중증 중고령 장애여성들은 연령이 높을수록 경제적 노후준비를 할 가능성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연령 변수의 경우 연령이 증가할수록 경제적 노후준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 경우(홍성희·곽인숙, 2006; 조추용 외, 2009; 이신영, 2010)도 있는 반면 연령이 부(-)의 영향을 미치거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게 나타나는 연구도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연령이 높을수록 경제적 노후준비를 할 가능성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중증 장애여성의 경우 50대가 많았는데, 고령으로 접어들수록 경제활동참가율이 떨어지고 노후의료비 등 지출이 늘어나면서 경제적 노후준비를 할 여력이 줄어든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중증 중고령 장애여성들이 교육을 더 많이 받을수록 경제적 노후준비를 할 가능성이 12.7%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존의 비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박창제, 2008; 이소정, 2009)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조정아, 2000) 결과와 일치한다. 일반적으로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소득이 많아지고 따라서 경제적 노후준비에 대한 여유와 인식이 많아지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둘째, 가용자원 중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요인을 살펴보면, 중증 중고령 장애여성들이 취업을 하게 되면 경제적 노후준비를 할 가능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비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기존 연구들(박창제, 2008; 이소정, 2009; 홍성희·곽인숙, 2006)과 동일한 결과이다. 즉 취업을 통해 가구경제의 소득이 증가할수록 경제적 노후준비에 대한 인식이 확대될 수 있다. 그리고 사회경제적 지위에 관해 주관적으로 높게 인식할수록 경제적 노후준비를 할 가능성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장애인을 대상으로 연구한 박창제(2008)는 현재 소득의 주관적 인식이 긍정적일수록 노후를 위한 경제적 준비에 더 적극적임을 논의하였다. 반면, 홍성희·곽인숙(2006)은 경제능력에 대한 주관적 인식과 노후를 대비한 경제적 준비 간에는 부(-)의 영향을 미친다고 밝히고 있다. 즉 비장애인 대상으로 한 기존 연구들 간에 가구경제 관한 주관적 인식은 상반된 결과를 보이고 있지만, 중증 중고령 장애여성을 대상으로 한 본 연구에서는 현재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를 높게 인식할수록 경제적 노후준비를 할 가능성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소득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높으면 실질 소득도 높고, 혹 실질 소득이 낮다하더라도 절약 또는 기초자산 등으로 경제적 여유가 있기 때문에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다고 인식할 수 있으며, 이러한 현실인식은 경제적 노후준비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중증 중고령 장애여성들은 주택을 소유할수록 경제적 노후준비를 할 가능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주택을 소유하면 소유하지 못한 경우보다 재무적 자립이 용이할 수 있으므로 경제적 노후준비를 하는 데 용이할 수 있다(Yuh and DeVaney, 1996; 홍성희·곽인숙, 2006; 박창제, 1998)는 선행연구와 일치하는 결과를 보였다. 셋째, 인식된 필요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요인을 살펴보면, 중증 중고령 장애여성들은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경제적 노후준비를 할 가능성이 64.7%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장애인 중년층을 대상으로 연구한 임희정(2002)은 자신의 건강수준을 좋게 느낄수록 노후준비에 적극적임을 확인하였다. 건강하다고 느낄수록 기대수명을 길게 내다볼 것이고 또한 소득활동을 하거나 미래를 준비할 여유를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중증 중고령 장애여성들은 본인의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본인의 노후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인식하고 준비하는 선택을 한다고 볼 수 있다.

〈표 6〉 중증 중고령 장애여성 분석결과

변 수		B	S.E.	Wals	Exp(B)
상 수		-2.265	.796	8.106	.104
소인적 특성	연령	-.001	.000	8.562***	.999
	교육년수	.119	.027	19.519***	1.127
	배우자 유무	.386	.253	2.328	1.472
	가구원수	-.176	.115	2.349	.839
가용자원	취업여부	1.189	.243	23.864***	3.284
	가구균등화지수	.000	.001	.033	1.000
	가구이전소득	-.001	.000	2.527	.999
	사회경제적 지위	.714	.404	3.120*	2.041
	주택소유 여부	1.160	.234	24.542***	3.190
인식된 필요	장애유형	-.298	.204	2.133	.742
	건강상태	.499	.223	5.014**	1.647

N= 1,023 χ^2= 170.781*** Nagelkerke R^2= .206

주: *p<.10, **p <.05, ***p<.01.

2) 경증 중고령 장애여성

경증 중고령 장애여성들이 노후준비를 하게 되는 영향요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패널로짓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모형의 예측은 89.6%의 설명력을 나타냈다. 분석결과, 경증 중고령 장애여성들이 경제적 노후준비를 하게 되는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소인적 특성과 가용자원으로 분석되었다. 구체적으로 소인적 특성 중 교육년수는 1% 유의수준에서 정(+)의 영향을 미치며, 가구원수는 1% 유의수준에서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가용자원 중 취업여부, 가구균등화지수, 사회경제적 지위, 주택소유 여부는 1% 유의수준에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중증 중고령 장애여성 분석과 달리 본 분석에서는 인식된 필요 요인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첫째, 소인적 특성 중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요인을 살펴보면, 경증 중고령 장애여성들은 교육을 더 많이 받을수록 경제적 노후준비를 할 가능성이 11.6%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증 중고령 장애여성과 동일한 결과이다. 그리고 가구원수가 많을수록 경제적 노후준비를 할 가능성이 26.9%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데이터 분석결과 경증 중고령 장애여성의 가구원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23.4%로 상당히 낮기 때문에 가구경제에 도움이 되지 못할 확률이 높으며, 이는 곧 현재 경제적 노후준비 여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둘째, 가용자원 중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요인을 살펴보면, 경증 중고령 장애여성들이 취업을 하게 되면 경제적 노후준비를 할 가능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증 중고령 장애여성과 동일한 결과이다. 그리고 가구균등화지수가 높을수록 경제적 노후준비를 할 가능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경증 중고령 장애여성들이 여타 가구원의 소득활동이든 자산에 따른 이자소득이든 가구소득을 통해서 가용자원을 많이 확보할수록 경제적 노후준비를 할 가능성이 증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은 사회문화적으로 가계경제가 개인 단위가 아닌, 가구를 단위로 운영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장애여성 개인의 노후준비 또한 가구소득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생각된다. 가용자원 변수 중 주관적으로 사회경제적 지위에 관해 높게 인식할

수록 노후준비를 할 가능성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증 중고령 장애여성과 동일한 결과이다. 그리고 자가주택을 소유할수록 경제적 노후준비를 할 가능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또한 중증 중고령 장애여성들과 동일한 결과이며, 현재의 자산이나 경제적 안정이 경증 중고령 장애여성의 노후준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7〉 경증 중고령 장애여성 분석결과

변수		B	S.E.	Wals	Exp(B)
상수		-3.973	.445	79.660	.019
소인적 특성	연령	.000	.000	.650	1.000
	교육년수	.110	.017	41.104***	1.116
	배우자 유무	.181	.143	1.601	1.198
	가구원수	-.313	.071	19.460***	.731
가용자원	취업여부	.950	.121	61.979***	2.586
	가구균등화지수	.001	.000	7.954***	1.001
	가구이전소득	.000	.000	2.623	1.000
	사회경제적 지위	1.590	.161	97.819***	4.903
	주택소유 여부	1.665	.166	100.975***	5.286
인식된 필요	장애유형	.038	.119	.101	1.039
	건강상태	.098	.132	.547	.019

N=834 χ^2= 509.498*** Nagelkerke R^2=. 250

주: *p〈.10, **p 〈.05, ***p〈.01.

Ⅴ.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앤더슨 모형을 적용하여 중고령 장애여성이 경제적 노후준비를 선택하게 되는 요인과 함께 이러한 선택이 장애정도(중증, 경증)에 따라 어떻게 다른지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장애인고용패널조사(PSED, 2~7차년도)' 원자료를 활용하여 패널로짓분석을 실시하였고, 중고령 장애여성의 노후준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중증 장애여성 집단과 경증 장애여성 집단에서 다르게 나타났다.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중증 중고령 장애여성의 경우 연령이 적을수록, 교육년수가 많을수록, 취업자이며,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자가주택 소유자일수록,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경제적 노후준비를 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경증 중고령 장애여성의 경우 교육년수가 많을수록, 가구원수가 적을수록, 취업자이며,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자가주택 소유자일수록 경제적 노후준비를 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두 집단을 비교해본 결과, 공통적으로 경제적 노후준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드러났다.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취업자일수록,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다고 인식하고 있을수록, 자가주택을 소유할수록 장애여성은 장애정도와는 관계없이 노후준비를 할 확률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교육이나 취업여부, 현재의 사회경제적 상황에 따라 경제적 노후준비의 여력이 달라진다는 비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대부분의 선행연구와 일치하는 결과라 볼 수 있다. 즉 취업여부, 교육수준, 현재의 사회경제적 지위, 주택소유 여부는 장애여부나 장애정도와 관계없이 기본적으로 경제적 노후준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라고 하겠다.

그 외에 중증 중고령 장애여성과 경증 중고령 장애여성의 노후준비에 영향을 미치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수들을 살펴보면 두 집단 간 차이가 있었다. 우선 앤더슨 모델에서는 소인적 특성, 가용자원, 인식된 필요로 영향요인을 구분하고 있는데, 경증 중고령 장애여성은 노후준비 여부에 인식된 필요요인(장애유형, 건강상태)의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에, 중증 중고령 장애여성은 필요요인 중 건강상태 변수의 유의미한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증 장애여성에 비하여 중증 장애여성은 건강상태가 삶 전반의 영역에 더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건강상태는 노후준비 여부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의료비 지출이 적거나 소득활동에 종사할 수 있어서 노후준비 할 여력이 높아지거나, 건강 자체가 노후준비라고 인식하고 있어서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낮아지기 때문에,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경제적 노후준비를 할 확률이 높다는 연구 결과가 도출되었을 수도 있다. 이에 따라 1급에서 3급까지의 중증 장애여성을 위해서는, 건강관리 및 이차장애예방 등 건강상태를 유지하거나 좋게 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여, 현재의 삶 뿐만 아니라 미래의 경제적 노후생활을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흥미로운 것은 장애정도로 구분된 두 집단 모두 경제적 노후준비 여부에 장애유형 변수의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은 점이다. 이는 어떤 장애를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서 장애여성의 노후준비 여부가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볼 때 장애유형별로 구분된 소득지원이나 노후준비 프로그램을 별도로 마련하기보다는, 중증의 장애여성에 한하여 건강증진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고, 경증이든 중증이든 장애여성의 노후준비여부는 상당히 낮은 비율의 응답을 보였다는 점에 기반하여 전반적인 장애여성의 경제적 노후준비를 위한 방안마련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경증 중고령 장애여성의 경우 필요요인(장애유형, 건강상태)의 영향이 없기에 가용자원 중에서 노후준비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지원하는 제도에 초점을 둘 필요가 있다.

두 집단 모두 가용자원에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 변수를 살펴보면, 취업상태일수록, 자가주택을 소유했을수록,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다고 인식할수록 중고령 장애여성 두 집단 모두 노후준비를 할 확률이 높아진다고 하였다. 즉 장애여성의 노후준비를 위해서는 장애여성의 취업을 증진하고, 자산을 늘릴 수 있는 방안마련이 필요한 것이다. 비장애인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취업 및 자산형성의 기회가 낮은 장애여성은 노후에 빈곤에 처할 확률이 높음을 고려하여 장애여성 취업증진 및 창업지원 프로그램, 자산형성 및 유지와 관리를 위한 교육이나 상담지원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장애여성의 특성을 감안하여 미래의 경제적 노후준비 뿐만 아니라 이미 고령의 상태에 있는 장애여성의 경우에는 노후의 자산과 생계유지 관리를 지원하는 사회복지적 제도 마련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중증과 경증의 중고령 장애여성 두 집단의 노후준비 여부에 다르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주목할 요인은 소인적 특성의 가구원수이다. 경증 중고령 장애여성의 경우 가구원수가 늘어날수록 경제적 노후준비를 할 확률은 낮아지는 결과가 나타났다. 사실상 경제적 노후준비는 대부분 개별적으로 이루어지기 보다는 가구단위를 기본으로 하여 준비된다. 즉 함께

지내는 가구원이나 배우자 유무가 영향을 상당히 미칠 수 있으며, 배우자를 포함한 가구원이 경제적으로 보탬이 되는 존재인지 짐이 되는 존재인지에 따라서 해당가구의 노후준비 여부는 달라질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지만 배우자 유무는 경제적 노후준비에 중요한 고려 요인이었다. 비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황승일, 2000; 박창제, 2008)에서 배우자가 있는 경우 노후를 위한 경제적 준비를 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배우자 유무는 노후준비 여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아니었다. 단 가구원수는 중증과 경증 두 집단 간 차이를 드러내 보여주는 변수였다. 경증 중고령 장애여성의 경우 가구원수가 늘어날수록 노후준비 여력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가구균등화지수와 연결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다. 경증 집단에서 가구균등화지수가 높을수록 노후준비를 할 확률이 높게 나타났는데, 가구균등화지수는 가구의 모든 소득을 가구원수의 제곱근으로 나눈 값으로서, 가구원당 소득규모를 의미한다. 즉 가구균등화지수가 높을수록 노후를 준비할 수 있다는 것은 현재의 경제상황이 좋기에 미래를 준비할 수 있다는 의미인데, 현재 가구원수가 많을수록 노후준비 여력이 낮아진다는 결과는 경증 장애여성의 가구원이 경제적으로 보탬이 안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중증과 경증 두 집단을 비교해보면 경증 중고령 장애여성의 경우 가구원수와 가구균등화지수가 유의미한 변수로 나타났으며, 중증 중고령 장애여성의 경우 이 두 변수는 유의미하지 않은 변수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볼 때, 경증 장애여성의 경우 특히 가구원의 경제적 능력이 장애여성의 노후준비 여부와 더욱 밀접한 영향관계에 있음을 알 수 있으며, 향후 경증 장애여성의 가구원 특성 및 배우자 소득활동 등에 대한 추가 변인이 고려된 연구가 수행된다면 가구중심의 경제적 노후준비에 가구원의 영향관계를 보다 면밀히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두 집단의 차이가 드러난 부분을 종합하면, 중증 중고령 장애여성의 경우 경증 집단과 달리, 연령이 높을수록 건강상태가 나쁠수록 경제적 노후준비를 할 확률이 낮아졌으며, 경증 중고령 장애여성의 경우 중증 집단과는 달리 가구원수가 많을수록 가구균등화지수가 낮을수록 경제적 노후준비를 할

확률이 낮아졌다. 이러한 결과는 장애여성의 노후준비를 진작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때, 장애정도에 따라 다른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앞서 논의했듯이 두 집단 모두 자산형성지원이나 취업지원, 교육지원 등을 통해 비장애인과 마찬가지로 일반적인 경제적 노후준비를 위한 대책마련도 중요하지만, 중증 장애여성의 경우 건강증진에 더욱 초점을 둘 필요가 있으며, 경증장애인의 경우 가구원의 경제력 및 특성이 고려된 노후준비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한계점을 논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노후준비 여부를 종속변수로 다루고 있는데, 노후준비 정도나 수준을 알 수는 없다. 노후준비 여부 응답이 다소 주관적 판단으로 응답된 것이기에 노후를 보내기에 적정한 수준의 준비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이에 향후 연구에서는 장애여성의 노후준비 수준이나 정도까지 고려된 연구가 수행될 필요가 있다. 둘째, 이차자료 사용의 한계로 인해 앤더슨 모델을 적용할 때 보다 다양한 변수를 포함시키지 못한 한계점이 있다. 자산이나 배우자 명의의 노후연금, 국민연금 가입여부 등 한국적 상황에서 경제적 노후준비와 관련하여 중요한 가구관련 변수나 예상되는 소득보장제도가 고려되지 못하였다. 향후 장애여성의 노후준비와 관련된 연구를 수행할 때 이러한 제약점들이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어떤 상황에서 어떤 요인으로 인해 장애여성이 본인의 노후준비를 하게 되는지 보여주는 질적연구도 향후 수행될 필요가 있다.

현재의 삶속에서도 사회적 차별과 박탈을 경험하는 소수자인 장애여성이 미래의 삶을 준비하는 차원에서 경제적 노후를 준비하는 일은 쉽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개인의 자립을 지원하는 정책으로서 장애여성이 노후를 준비하는데 도움이 되는 실질적 지원과 환경이 마련된다면, 장애여성의 노후생활에 대한 국가차원의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이며, 고령의 장애여성은 보다 행복한 노년을 보낼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탐색적 수준의 양적연구로나마 장애여성의 노후준비 결정요인을 알아보았다는 데에 의의를 찾을 수 있으며, 향후 장애여성의 노후준비 증진을 위한 정책마련에 기초가 되는 자료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

물론 이 연구가 사회적 수준에서의 제도적 노후보장을 논하기에는 개인적인 요인들을 중심으로 탐색하고 있고 이차자료를 활용하였기에 연구에 활용되는 변수의 한계도 있으나, 현실적으로 스스로 대비하고 살아남아야 하는 고령 장애여성을 삶을 고려해볼 때, 개인적 차원에서의 경제적 노후준비 결정요인을 살펴보는 것도 의미있는 일이다. 본 연구의 관련 주제영역에서의 탐색적 의의와 한계점을 다룬 내용이 토대가 되어 후속연구에서는 장애여성의 노후준비를 위한 사회적 차원의 구체적인 정책제언이 가능할 것이다.

■ 투고일 : 2016년 3월 31일 ■ 심사일 : 2016년 5월 16일 ■ 수정일 : 2015년 5월 25일 ■ 게재확정일 : 2016년 6월 1일

참고문헌

권재숙·김성진(2012). “성인여성장애인의 우울의 실태와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제57권 제1호, 169-192.

김동배·정규형·이은진(2012). “노인의 과거 노후준비정도와 준비유형이 성공적 노화에 미치는 영향과 생활만족도의 매개효과”. 노인복지연구, 제58권, 325-352.

김미옥·김고은·최수연(2013). “고령여성장애인의 삶에 관한 탐색적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제42권, 169-193.

김미혜·문정화·신은경(2012). “베이비부머의 부부관계 특성이 노후준비에 미치는 영향 연구-예비노인과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가족관계학회지, 제17권 제3호, 211-239.

김소희·박미현(2015). “중고령 여성의 시간제 일자리 결정요인과 노후준비”. 한국컨텐츠학회논문지, 제15권 제1호, 185-196.

김승완·강동욱·고아라·김지혜(2015). “중증과 경증 여성장애인의 시간제 일자리 참여 결정요인 연구”. 장애와 고용, 제25권 제1호, 105-136.

김윤정·최윤희(2004). “중년기 부부의 결혼만족도가 노후준비도에 미치는 영향”. 노인복지연구, 제24권, 197-213.

김정미·엄기욱(2014). “베이붐 세대의 가족특성이 경제적 노후준비에 미치는 영향 연구”. 한국사회복지행정학, 제16권 제4호, 197-221.

김주성·최수일(2010). “라이프스타일이 노후준비도 및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복지학, 제15권 제3호, 97-119.

김혜진(2012). “중년층의 노후생활에 대한 인식이 노후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노인복지제도 인지여부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조사연구, 제32권, 53-80.

나지나·백승애·신응영·김미혜(2010). “결혼해체를 경험한 베이비부머 여성의 경제적 노후준비 여부에 관한 연구”. 보건사회연구, 제30권 제2호, 29-54.

노승현·백은령(2012). “장애노인가구의 빈곤결정요인에 대한 종단연구”. 장애와 고용, 제22권 제4호, 267-293.

민인식·최필선(2009). STATA 패널데이터 분석. 서울 : 한국STATA학회.
박주영(2012). “고령여성장애인 삶의 만족도에 관한 연구 : 노후준비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재활복지, 제17권 제4호, 53-77.
박창제(2008). “중·고령자의 경제적 노후준비와 결정요인”. 한국사회복지학, 제60권 제3호, 275-297.
박현식(2012). “베이비부머의 노후준비와 성공적 노후 관계 연구”. 노인복지연구, 제58권, 281-302.
배문조(2009). “중년기 성인의 노인에 대한 태도와 노후준비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 제29권 제3호, 1107-1122.
성정현·이영미(2003). “성인지적 관점에서 본 여성장애인의 건강과 교육, 취업 문제”. 비판사회정책, 163-196.
성지미·안주엽(2007). “시간제 근로에서 자발성과 일자리 만족”. 노동경제논집, 제30권, 109-137.
오혜경·김미옥·박숙경·지석연·김정애(1999). 여성장애우 평등생활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과제. (사)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이상영·정진욱·황도경·손창균·윤시몬·채수미·차미란·김효진(2015). 한국사회의 사회 심리적 불안의 원인분석과 대응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소정(2009). “우리나라 중장년층의 노후준비에 관한 인식과 정책적 함의”. 보건복지포럼, 제147권, 72-80.
이여봉(2012). “중년여성의 노후 준비에 관한 연구: 베이비붐 세대와 이전 세대”. 가족과 문화, 제24집 제1호, 31-70.
이지은(2002). 중년기 직장남성의 노후생활 계획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이혜경·유태균·이선우(2002). 복지정책의 양성평등 효과성 평가 및 대안연구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장애인복지정책을 중심으로. 보건복지부.
유인순·최수일(2012). “베이비부머의 성격특성이 노후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천안지역공단 근로자를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2권 제4호, 245-262.

조성숙·서훈(2011). "중년남성의 직장생활과 배우자와의 관계가 성공적 노후준비에 미치는 영향". 노인복지연구, 제54권, 211-235.

조윤화 ·김태용·송기호(2015). 2015 장애통계연보, 한국장애인개발원.

조정아(2010). "장애인의 경제적 노후준비 실태와 결정요인". 2010년 한국사회보장학회 추계정기학술대회 자료집, 255-275.

조추용·송미영·이근선(2009). "중년층의 노후준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노인복지연구, 제43호, 135-156.

정순둘·김성원(2012). "가족특성과 노후준비의 관계 : 베이비붐 세대와 예비노인세대의 비교". 노인복지연구, 제58권, 209-231.

홍성희·곽인숙(2006). "중년기 남녀 봉급생활자의 은퇴계획 비교분석 : 경제적 준비와 건강준비를 중심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24권 제1호, 193-207.

Ahern, K. D. (1996). The older woman: the able self, Garland. New York.

Anderson, M., Li, Y., Bechhofer, F., McCrone, D., & Stewart, R. (2000). Sooner rather than Later? Younger and Middle-aged Adults Preparing for Retirement. Aging and Society, 20(4), 445-466.

Barbuto, R. & Napolitano, E. (2014). Women with disabilities : from discrimination and violence towards an ethics of reciprocity. Modern Italy, 19(2), 161-168.

Begum, N. (1992). Disabled Women and the Feminist Agenda. Feminist Review, 4(1), 70-84.

Browne, C. V. (1998). Women, feminism, and aging, Springer, New York.

Emmett, T. (2006). Disability, poverty, gender and race in B Watermeyer, L Swartz, T Lorenzo, Schneider M and M Priestley (eds) Disability and Social Change : A South African Agenda(pp. 207-233), Cape Town: HSRC Press.

Foster, A. C. (1996). Employee Participation in Savings and Thrift Plans. Monthly Labor Review, 119(3), 17-22.

Foster & Sandel. (2010). Abuse of Women with Disabilities : Toward an Empowerment Perspective. Sexuality and Disability, 28(3), 177-186.

Grenier, A. M. (2005). The contextual and social locations of older women's experiences of disability and decline. Journal of Aging Studies, 19(2), 131-146.

Groce N., izutsu, T., Reier, S., Rinehart, W., & Temple B. (2009).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WHO/ UNFPA guidance not. Geneva : World Health Organization and United Nation Population Fund.

Harrison, T. C. (2004). The Meaning of Aging for women with Childhood Onset Disabilities, Doctoral Dissertation. The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Kang, M. H. (2010). Enabling Community : Disabled Women's Practice of Changing Disability Values. Asian Journal of Women's Studies, 16(4), 30-59.

Kemp, C. L., Rosenthal. C. J., & Denton, M. (2005). Financial planning for later life: Subjective understandings of catalysts and constraints. Journal of Aging Studies, 19(3), 273-290.

Lloyd, M. (2001). The politics of disability and feminism: Discord or synthesis? Sociology, 35(3), 715-728.

Morell, C. M. (2003). Empowerment and long-living women : return to the rejected body. Journal of Aging Studies, 17(1), 69-85.

Noone, J., Alpass, F. & Stephens, C. (2010). Do men and women differ in their retirement planning? Testing a theoretical model of gendered pathways to retirement preparation. Research on Aging, 32(6), 715-738.

Nosek, M. A., Hughes, R. B., Swedlund, N., Taylor, H. B., & Swank, P. (2003). Self-esteem and women with disabilities. Social Science and Medicine, 56(8), 1737-1747.

Pentland, W., Tremblay, M., Spring, K., and Rosenthal, C. (1999) Women with physical disabilities : Occupational impacts of ageing. Journal of Occupational Science, 6(3), 111-123.

Perkins, K. (1995). Social in Security : Retirement Planning for Women. Journal of Women & Aging, 7(1-2), 37-53.

Pinquart, M. & Sörensen, S. (2002). Factors that promote and prevent preparation for future care needs : Perception of older Canadian, German, and U.S women. Health Care for Women International, 23(6-7), 729-741.

Rochester Institute. (2001). Disability-Related Support Arrangements Policy Options and Implications for Women's Equality. Status of Women Canada, Ottawa.

Sait, W., Lorenze, T., Steyne, M. Van Zyl, M. (2009). Nurturing the sexuality of disabled girls : The challenges of parenting for mothers in M Steyn and M van Zyl (eds) The Prize and the Price : Shaping Sexualities in South africa (pp. 192-219), Cape Town : HSRC press.

Simonsick, E. M. (1993). Relationship between husband's health status and the mental health of older woman. Journal of Aging and Health, 5(3), 319.

Sörensen, S., & Pinquart, M. (2000). Preparation for future care needs by West and East German older adults. The Journals of Gerontology. Series B, Psychological Sciences and Social Sciences, 55(6), 357-367.

Thomas, C. (1999). Female Forms : experiencing and understanding disability, Buckingham : Open University Press.

Yuan, Sarah Chui-Wai. (2006). Determinants of Awareness and Knowledge of Long-Term Care Services and Financial Preparation for Future Care Needs among Older Adults, Unpublised Ph.d. Dissertation, University of Hawai.

Wakita, S., Fitzsimmons, V. S., & Liao, T. F. (2000). Wealth: Determinants of savings net worth and housing net worth of pre-retired households. Journal of Family and Economic Issues, 21(4), 387-418.

Wendell, S. (2006). Toward a feminist theory of disability in L Davis(Ed.) The Disability Studies Reader(2nd ed., pp. 243-255), New York and London : Routledge.

Abstract

The effects of disability severity on economic participation for aging : Focusing on older women with disabilities

Soung-Wan, Kim* · Ji-Hye, Jeon**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the factors that led older women with disabilities to choose economic preparation for aging, especially focusing on different degrees of disabilities (i. e., severe and mild). The 1,857 older women with disabilities in the 'Panel Survey of Employment for the Disabled from 2nd to 7th years were included in the panel logit analysis. The results showed that (a) the majority of study participants did not prepare economic participation for aging, specifically 8% and 16% in the group with severe and mild disabilities) ; (b) as increasing study participants' education level, employment status, socioeconomic status, and home-ownership, they are more likely to prepare for the economic preparation for aging well ; (c) specifically as lower age and better healthy status, women with severe disability are more likely to prepare for the economic preparation for aging. As lower number of family members and higher level of households equivalence scale, women with mild disability are more likely to prepare for the economic preparation for aging. This significant influences of women' socioeconomic status and degrees of disability have both practical and theoretical importance in that it indicated the need for increased focus on the economic preparation for aging in practice and future research.

Key Words : Older women with disability, Economic preparation for aging, Degree of disability, Anderson Model

* Korea Disabled People's Development Institute
** Incheon National University